

## 통계적분석을 통하여 본 조선어말소리와 발음의 우수성

안 성 득

순수한 민족어로서의 오랜 발전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말은 어휘표현과 문법구조에서뿐만아니라 말소리와 발음상측면에서도 세계에 보기 드문 우수한 언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말소리가 아름답고 발음도 풍부합니다. 우리 말은 매우 류창하며 억양도 좋고 듣기에도 유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은 발음이 풍부하여 그 어떤 힘들고 까다로운 발음도 정확히 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1페이지)

우리 말의 말소리와 발음의 우수성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밝힐수 있다. 통계적분석을 적용하는것도 량적지표로써 언어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말소리에 대한 통계적분석을 진행하여 말소리와 발음에서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려고 한다.

여기서 리용한 통계자료들은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본문들에서 쓰인 말소리자료 104만개를 조사분석한 소론문 《본문에서 쓰인 조선어자모음자들의 출현확률》[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92(2003)년 4호]에 발표된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어말소리에 대한 통계적분석을 통하여 그 우수성을 보기로 하자.

말소리와 그 흐름은 언어의 민족성과 우수성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예로부터 성품이 유하고 점잖으며 맑고 깨끗하고 선명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은 선률도 왁왁 고거나 높이 지르는것보다 유순한것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어의 말소리흐름은 갑자기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극히 드물고 유순하고 잔잔하게 흐르기때문에 음정이 비교적 낮으며 말소리흐름과정이 민요의 선률과도 같은 형식을 띤다.

우리 말이 매우 류창하며 억양도 좋고 서정가요와도 같이 유순하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들리는것은 어디까지나 말소리의 우수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다.

말소리 즉 어음은 사람의 복잡한 조음활동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입말의 최소단위이다.

언어는 말소리라는 《재료》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 심리같은것을 거기에 담아 표현할수 있으며 또 그것을 듣고 리해할수 있다.

해당 언어의 발음상특성과 아름다움은 실제적인 본문에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어울리며 얼마나 실현되는가, 어떤 부류의 자음과 모음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가 하는데 주요하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언어자료의 통계적분석에 대하여 론의할 때 말소리자료의 분석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서게 된다.

조선어의 말소리가 그토록 아름다운것은 우선 말소리의 구성상특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어의 말소리흐름에서 유성음이 전체 자음수의 21%이지만 실현비율은 2배이상이나 되는것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울림이 크고 류창하게 들린다. 즉 자음가운데 울림소리는 21%, 울림없는 소리가 79%를 차지하지만 언어행위속에서는 울림소리의 실현비율이 43%를 차지한다.

유성음은 목청울림이 있는 어음이다.

모든 모음은 다 유성음이며 일부 자음가운데도 유성자음이 있다.

레컨대 조선어의 자음 《ㄱ, ㄴ, ㄷ, ㄹ》이나 영어의 《b, g, l, m, n, d》 그리고 로어의 《б, г, д》 등은 유성음들이다.

우리 말에서는 목청울림이 있는 모음이 전체 말소리의 62.5%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조선말이 류창하고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울림없는 소리는 순한소리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입술소리, 혀 앞소리, 혀뒤소리에 정연하게 배열되어있으므로 유순하고 부드러운 소리와 되고 굳은소리 그리고 세차고 거친소리가 조화롭게 결합된다.

자음구성은 말소리흐름에서 소리마디들이 모음을 중심으로 그 앞뒤의 자음이 하나씩 결합됨으로써 모음과 유성음이 확률적으로 많이 실현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다.

조선어자음의 배열구성에서는 단어끝에 스침소리나 터스침소리,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오지 않는것으로 하여 꺾꺾 막히거나 마찰성이 강한 여운을 주는 현상이 없다.

조선어모음은 밝은모음과 어두운모음의 대립이 명백하기때문에 모음조화와 같은 발음상특징이 두드러지면서 맑고 깨끗하며 선명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인 감정정서를 말소리흐름의 유연한 선물로 훌륭히 표현할수 있다.

모음에서 홀모음은 48%, 겹모음은 52%정도이지만 실지 본문에서 쓰이는 모음수는 이와 반대로 홀모음이 86%이고 겹모음은 그의 1/6밖에 안되는 14%이다.

이것은 우리 말의 모음사용에서 홀모음이 결정적역할을 논다는것을 보여준다.

등근모음 《ㅏ, ㅑ, ㅓ, ㅕ》와 길죽모음 《ㅗ, ㅛ, ㅜ, ㅠ, ㅡ, ㅣ》의 본문에서의 실현비율을 보면 길죽모음이 등근모음의 4배나 된다.

이것은 등근모음보다 길죽모음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것을 보여준다.

높은모음 《ㅣ, ㅑ, ㅓ, ㅕ, ㅜ, ㅠ, ㅡ》와 낮은모음 《ㅗ, ㅛ, ㅏ, ㅑ, ㅓ, ㅕ》는 홀모음구성에서 높은모음이 낮은모음의 1.5배이다.

앞모음에는 《ㅣ, ㅑ, ㅓ, ㅕ, ㅜ, ㅠ》가 속하고 뒤모음에는 《ㅡ, ㅗ, ㅛ, ㅏ, ㅑ, ㅓ, ㅕ》가 속한다.

앞모음과 뒤모음은 수량이 똑같지만 쓰임에 있어서는 뒤모음이 앞모음보다 2배나 더 많이 실현된다.

총체적으로 보면 홀모음, 길죽모음, 높은모음, 뒤모음이 보다 활발하게 많이 쓰이고 겹모음, 등근모음, 낮은모음, 앞모음이 보다 소극적으로 적게 쓰인다.

또한 이어내기와 끊어내기와 같은 말소리법칙들, 앞모음과 뒤모음의 고르로운 발전과 같은 현상들도 우리 말의 말소리흐름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그것을 듣기에도 매우 아름다운것으로 만들고있다.

순한소리는 《ㄱ, ㄷ, ㅌ, ㅍ, ㅊ》이, 된소리에는 《ㅃ, ㄸ, ㅆ, ㅈ, ㅊ》이, 거센소리에는

《ㄱ, ㄷ, ㅂ, ㅈ, ㅎ》이 속한다.

자음들의 실현에서 순한소리는 된소리나 거센소리에 비하여 훨씬 더 많다.

말소리구성체계에서는 순한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가 똑같은 수량을 가지지만 본문에서는 순한소리가 거센소리의 4배, 된소리의 5배를 넘는다.

구성체계에 있어서 울림없는 소리의 1/4정도인 울림소리가 쓰임에 있어서는 울림없는 소리에 거의 대등할 정도로 나타난다는것은 우리 말이 울림도가 높은 자음들로 이루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조선어발음에 대한 통계적분석을 통하여 그 우수성을 보기로 하자.

우리 말 발음으로써는 세계 그 어떤 언어의 말소리도 거의 그대로 발음할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발음으로써는 조선말발음을 실현하기 힘들어하는것이 적지 않다.

영어자모는 26개로서 그가운데서 모음이 (a, e, i, o, u)이므로 조선어의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ㅟ》는 어떤 방법으로도 발음할수 없다.

레컨대 영어에서 조선어를 《Korea》(코리아)로 표기한것은 《고려》에서 《려》의 발음이 힘들기때문이다. 영어뿐이 아니라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도이쉴란드어 등도 모음 《ㅏ, ㅑ》의 발음이 힘들기때문에 《려》를 《rea》(리아)로, 《성천》을 《Songchon》(송춘)으로, 《정주》를 《Jongju》(종주)로 하고있는것이다.

로어자모에는 33개가 있는데 그가운데서 모음은 10개, 반모음은 1개, 부호는 2개이다.

로어모음으로도 우리 말의 모음을 다 적고 발음할수 없다.

로어모음으로는 우리 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ㅟ》에 대응되는 모음이 없으므로 이 모음들을 발음할수 없다.

그러므로 로어로는 《평양》을 [쁘헨양]으로, 《청진》을 [첸진]이라고 발음한다.

로어자음에는 20개가 있는데 우리 말 자음의 순한소리 《ㄱ》대신 《C》를 쓰고 [쓰]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로어에서는 《사리원》이 [싸리온]으로 발음된다.

중국어에는 모음발음기호가 6개(a, e, i, o, u, y) 있는데 우리 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ㅟ》에 대응되는 모음발음이 없다.

그리고 자음발음기호가 19개(b, c, d, f, g, h, j, k, l, m, n, p, q, r, s, t, w, x, z)인데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렇게도 발음되고 저렇게도 발음되는 현상이 적지 않다. 다시말하여 우리 말에서는 《ㄱ, ㅋ, ㆁ》, 《ㄷ, ㅌ, ㄷᄇ》, 《ㅂ, ㅍ, ㅃ》, 《ㅅ, ㅆ》, 《ㅈ, ㅊ, ㅉ》이 명백하게 구분되는데 중국어에서는 [g, k]로 우리 말 《ㄱ, ㅋ, ㆁ》을, [d, t]로 우리 말 《ㄷ, ㅌ, ㄷᄇ》을, [b, p]로 우리 말 《ㅂ, ㅍ, ㅃ》을, [j, z, c]로 우리 말 《ㅅ, ㅆ, ㅉ》을 발음한다.

특히 중국어는 외래어를 자모결합으로 표기하고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써오는 한자를 가지고 쓰고있으므로 다른 나라 고유명사들을 그 나라 발음에 최대한 접근시켜 발음하지 못한다. 레컨대 《조선(朝鮮)》은 [차오쑤엔]으로 발음하며 《도쿄(東京)》는 [둥징]으로 발음한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글자가 자모로 되어있지 않고 50개의 음절자를 가지고있다.

그가운데서 자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35개, 모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15개이다.

결국 일본어는 소리마디가 적고 받침소리도 없으므로 다른 나라의 고유명사들을 그 나라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지 못한다.

레컨대 일본어에서는 《평양》은 [뽕양]으로, 《금강산》은 [궁강산]으로 발음한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은 말소리가 많고 발음이 풍부하기때문에 다른 나라말들을 다 그 나라 발음에 가깝게 발음할수 있지만 다른 나라 말소리로는 우리 말소리를 원만히 발음할수 없다.

우리 말 발음이 풍부한것은 한번의 날숨으로 낼수 있는 음절문자수가 그 어느 언어보다도 많은것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우리 말에는 자모음수가 40개뿐이지만 한번의 날숨으로 낼수 있는 음절문자수는 무려 11 172자나 된다. 즉 우리 말의 음절글자조성에서 첫 소리로 자음자 《ㅇ》이 쓰인다고 보면 음절글자는 다음의 세가지 류형을 이루게 된다.

① 《자음자+모음자》로 이루어진것

례: 자, 소, 처, 우, 그, 키,...

② 《자음자+모음자+자음자》로 이루어진것

례: 산, 점, 복, 술, 줍, ...

③ 《자음자+모음자+자음자+자음자》로 이루어진것

례: 값, 닭, 삶, 흙,...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이므로 ①류형의 음절수는  $21 \times 19 = 399$ 개, ②류형의 음절수는 자음에서 끝소리에 놓이지 못하는 자음자들인 《ㄷ, ㅁ, ㅂ》을 제외하면  $399 \times 16 = 6\ 384$ 개, ③류형의 음절수는 둘받침의 개수가 11개이므로  $399 \times 11 = 4\ 389$ 개로서 모두 11 172자가 얻어진다.

이처럼 음절수가 방대하기때문에 우리 말은 발음상 그 어느 나라 말의 힘들고 까다로운 발음도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수한 민족어를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통계적분석, 발음